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



2017

표지 사진 // 전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단 열 // 1)** 한미 공군 훈련 (사진 제공: 미 공군 콜빌 맥피 (Colville McFee) 상병), 2) USS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 호와 한국 해군 전함(사진 제공: 미 해군 자말 리델 (Jamaal Liddell) 일병), 3) 공동경비구역에서 틸러슨 (Tillerson) 장관과 브룩스(Brooks) 장관(사진 제공: 미 육군 셉 K 하프 (Sean K. Harp) 중사), 4) A-10, F-16 엘리펀트 워크, 오산 공군기지(사진 제공: 미 공군 트래비스 에드워즈 (Travis Edwards) 중사), **중간 열 // 1)** 미국 및 한국 해군 구축함(사진 제공: 미 해군 네이션 버크 (Nathan Burke) 상병), 2) B-1B 및 F-15K 비행 (사진 제공: 미 해병 아이작 아이바라 (Isaac Ibarra) 병장), 3) 부산에 입항 중인 USS 존 C 스테니스 (John C. Stennis) 호 (사진 제공: 미 해군 웨슬리 J 브리드러브 (Wesley J. Breedlove) 대위홍보담당 3급), 4) A-10, 오산 공군기지 (사진 제공: 크리스틴 하이 (Kristin High) 상병), 5) 지상군 축제 (사진 제공: 미 8군 홍보부 장일환 상병), **하단 열 // 1)** UN 한국전 참전 용사 (사진 제공: 미 해군 웨슬리 J 브리드러브 (Wesley J. Breedlove) 상병), 2) 한강 공원 전경 (사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전한), 3) 미 육군 험프리스 (Humphreys) 기지 항공 사진(사진 제공: 미 육군), 4) 경복궁 근위대 교대식 (사진 제공: 전한).

후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단 열 // 1)**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사진 제공: 피트 보가트 (Pete Bogart) 대위), 2)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브룩스 (Brooks) 장관 (사진 제공: 러셀 요만스 (Russell Youmans) 병장), 3)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 중인 F-16 (사진 제공: 미 공군 콜빌 맥피 (Colville McFee) 상병), 4) 훈련 중인 한미 군인 (사진 제공: 미 육군 장일환 상병), **중간 열 // 1)** 한국, 미국, 영국 공군 사령관, 한국 공군 F-15K (사진 제공: 미 공군 딜리안 배먼 (Dillian Bamman) 상병), 2) MV-22, 한국 및 태국 해병 (사진 제공: 이스마엘 페나 (Ismael Pena) 중사), 3) DMZ 를 방문 중인 다니엘 데일리 (Daniel Dailey) 미 육군 주임원사 (사진 제공: 미 육군 카투사 이경민 일병), 4) 래펠링 중인 한미 군인 (사진 제공: 한국 육군), 5) 한미 해병 훈련 (사진 제공: 미 해병 아이작 아이바라 (Isaac Ibarra) 병장), **하단 열 // 1)** 한국 전통 무용수 (사진 제공: 전한), 2) 반달 (Vandal) 중장, 한국 대학 관계자 (사진 제공: 미 8군 홍보부 장일환 상병), 3) 워싱턴 DC 한국전 기념비 (사진 제공: 국방홍보부 토드 로페즈 (Todd Lopez)), 4) 부산 전경 (사진 제공: 전한).

내용 //

2017



미 육군 사진

지휘부 //



대사관 서신

마크 내퍼 (Marc Knapper)
대사 대리의 서문.

03-04



사령관 메시지

빈센트 K 브룩스 (Vincent K. Brooks)
장군의 메시지.

05-06



유엔사 홍보부 사진

한국 및 지역 //



전략적 환경

한반도는 복잡한 안보 환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07-08



북한의 위협

지역과 세계 안정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9-12



한미동맹

2017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13-14



한미 역량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유연한 파트너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5-18



한국

미국의 국익, 지역 평화, 세계 안정에 중요한 지역 내 핵심 국가입니다.

19-20



2017
 ★★★★★
전략 다이제스트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는 사령관의 전략 커뮤니케이션처 (Communications Strategy Division) 에서 발행하는 사령부 출판물입니다. 편집 내용은 평문이며 사령부 산하 기관이 지향하는 공동의 노력을 반영하고 폭넓은 전파를 지향합니다. 내용이 항상 미국 정부 혹은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내용은 관련된 출처의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령부 //

유엔사 21-22

국제 공조의 근거지. 유엔사는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을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연합사 23-24

한미동맹의 중심. 연합사는 한미동맹의 초석으로서 양국의 군사 협력을 매일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25-26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주한미군은 한국군 및 유엔사 파병국 파트너와 60년 이상 협력하고 있습니다.

선임 편집위원

브라이언 하웰 (Brian Howell) 대령,
 전략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s Strategy) 처장

편집 위원단

데이나 다멜리오 (Dana D'Amelio)
 필립 크릭바움 (Philip Krigbaum)
 태 김 (Tae Kim)

프로젝트 관리자

폴 마르티네스 (Paul Martinez)
 제이슨 김 (Jason Kim) 소령

미술 감독/디자인

조슈아 바인더 (Joshua Binder)

사진 편집위원

랜스 나카야마 (Lance Nakayama)

주한미군 구성 //

미8군 (8TH ARMY)
 27-28



미7공군 (7AF)
 29-30



주한미해군 (CNFK)
 31-32



주한미해병대 (MARFORK)
 33-34



주한미특전사령부 (SOCKOR)
 35-36



부대 이전 //

부대 이전 프로그램은 미국과 현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전투 태세 및 역제력을 강화합니다.

37-38



지역사회관계 //

좋은 이웃 프로그램은 한국 곳곳에서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튼튼하고 활기차게 형성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39-42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로 튼튼한 미래 구축

독재에 맞서는 파트너십, 미래를 향한 한미동맹

43-44



사진 (내용) //

1페이지 // (상단-왼쪽) 한국 육군 특전사 군인, (중간-오른쪽) 정전 회담 사진, (썸네일 왼쪽) 전략 환경 지도, 무수단 미사일 발사, 짐 매티스 (Jim Mattis) 국방부 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 (썸네일 오른쪽),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사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구성요소, 조화의 상징이자 태극기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태극, 2페이지 // (썸네일 중간)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특전사의 주한미군 구성군 휘장, (썸네일-하단) 미 육군 험프리스 (Humphreys) 기지 전경, 커뮤니티 행사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게임 중인 미 해군 장교, (썸네일 하단 오른쪽) DMZ 공동경비구역의 빈센트 브룩스 (Vincent Brooks) 장군과 렉스 킬러슨 (Rex Tillerson) 국무장관.

WWW.USFK.MIL

대사관 서신

미국
국무부



마크 내퍼 (MARC KNAPPER) 대사 대리의 서문.



미국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반으로 경제와 정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굳건히 발전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안정과 안보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방어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안보 위협을 억제하는 것부터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사람 대 사람의 활기찬 유대 관계를 확장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지지와 희생 덕분에 한미동맹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로서 활동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의 관계는 민주주의, 자유무역, 인권, 법치를 비롯한 공통된 가치관에 단단히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며 이러한 믿음과 생활 방식을 지켜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긴밀하고 효과적인 조율에 따라 작년 유엔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안보 동맹에 단단히 뿌리내린 한미 관계는 지정학적 영역을 벗어나 무역 파트너십, 광범위한 문화 교류, 다양한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또한 우주, 사이버 보안, 환경, 에너지, 세계 보건과 같이 새롭고 역동적인 영역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 수호를 위한 주한미군의 준비 태세와 의지 덕분에 한미동맹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번영을 촉진하며 양국이 모두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를 지킬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도 함께 물리치고 이겨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 멀리 고향을 떠난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중요한 한미 관계의 초석입니다.

양국의 파트너십은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의 기둥이며 한반도, 지역 그리고 전세계 안정의 원천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주한미군과 협력하여 2017년을 다시 한 번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한 해로 만들어 이 중요한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내퍼 (Marc Knapper) 대사 대리



2016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 덕수궁의 마룻바닥을 닦고 있는 엠버시 그린 팀 (Embassy Green Team) 가족.



2017년 3월 18일 USS 칼 빈슨 (Carl Vinson) 호에서 환영 인사를 전하는 마크 내퍼 (Marc Knapper) 대사 대리.



2017년 3월 2일 유교 전통의식 중 가장 중요한 석전대제에 외국인으로는 6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명예 근위대장으로 참석한 마크 내퍼 (Marc Knapper) 대사 대리.



2016년 4월 22일 미 대사관 주최 "고 그린 (Go Green)" 행사 참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앤서니 트랜치나 (Anthony Tranchina) 지역 프로그램 부담당관.



사진 제공: 미 대사관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사령관 메시지

빈센트 K 브룩스 (VINCENT K. BROOKS) 장군의 메시지

I would first like to extend my utmost gratitude to all of the ROK-U.S. Service Members for their dedication and hard work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한미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며 미국은 앞으로도 이 위대한 나라 한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미국과 한국은 수많은 폭풍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지속된 돈독한 파트너십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관계를 맺은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며, 우리는 이러한 동맹을 키우고 강화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고 정전을 유지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다국적 합동 훈련을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유엔사 파병국의 참여를 넓혔습니다. 순환 부대를 캠프 케이시 (Camp Casey) 와 캠프 호비 (Camp Hovey) 에서 캠프 험프리스 (Camp Humphreys) 로 이동하고 영구 주둔 부대 일부도 이전했습니다. 또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한국에 배치된 미국 아파치 공격용 헬리콥터의 수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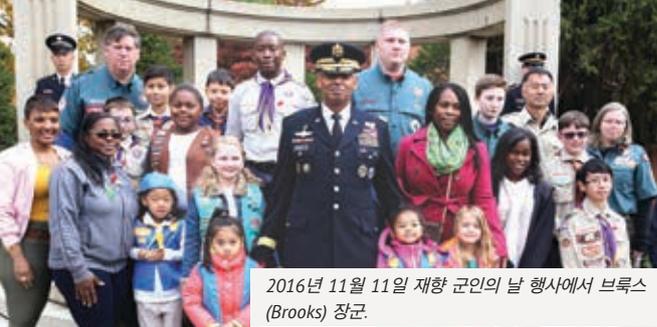
도널드 허드슨 (DONALD HUDSON) 일러

2016년 11월 21일 일본 도쿄 유엔의 날 71주년 기념 행사에서 연설 중인 유엔사 사령관 빈센트 K 브룩스 (Vincent K. Brooks) 장군.



2016년 11월 2일 호국 훈련에 참가 중인 한국 군인과 인사하는 브룩스 (Brooks) 장군.

러셀 요만스 (RUSSELL YOUMANS) 병장



2016년 11월 11일 재향 군인의 날 행사에서 브룩스 (Brooks) 장군.



2016년 5월 10일 한국 합동참모본부를 찾은 브룩스 (Brooks) 장군.



2016년 5월 19일 유엔사 사절 원탁 회의.

그 사이 북쪽의 부패 정권은 국제 사회를 무시하며 고립화를 심화했습니다. 2016년 1월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수소 폭탄 시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월 김정은은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노동당 대회를 소집하며 권력 강화 의지를 내비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8월에는 처음으로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했고 이후 9월에는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지만 이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매일 완수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기 위해 준비태세를 갖추고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50년대 초 이곳에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뭉친 동맹입니다. 하지만 흑시라도 역제가 실패할 경우에는 신속히 행동하여 자유의 적을 파괴할 것입니다.

연습, 훈련, 참여, 일상 활동을 불문하고, 이곳 사령부

장병들은 2016년에 훌륭히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는 “모든 팀” 이 합심한 결과로서, 동맹국과 유엔사 파병국을 비롯한 모든 민간인과 장병들의 노력을 치하합니다. 3개 사령부의 모든 인원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가족 역시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매일 희생하며 동북아시아의 한국에서 자유가 확립되도록 이바지했습니다.

미래는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밤에라도 당장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번영하는 한국의 밝은 미래, 지속되는 굳건한 파트너십, 지역 안정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닦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Kamsa Hamnida
감사합니다
Katchi Kapshida!
같이 갑시다!



2016년 7월 13일 한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브룩스 (Brooks) 장군.



2016년 7월 12일 KTX 를 타고 순시차 이동중.

러셀 요만스 (RUSSELL YOUMANS) 병장

전략적 환경

러시아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의 지지가 약해지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강화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접촉을 조금씩 늘리고 있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를 방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까지는 주로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나 새로운 다극화 세계 질서에서 중심 국가로 부상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쿠릴 열도 영유권을 두고 일본과 현재 진행형인 협상이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중국은 여전히 지역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국가이자 군사 강국입니다. 중국은 북한에게 압력을 가해 국제 사회에 호응하는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북한의 위협 증대에 대응하는 한국의 국방 강화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한반도에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단, 중국이 제재를 적극적으로 실행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역학 관계 //

동북아시아의 중심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긴밀한 경제적 관계로 불가분하게 결속되어 있지만 역사적인 갈등과 영토 분쟁이 상호 안보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오랜 파트너십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막고자 하는 다자간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더욱 대담하고 빈번해짐에 따라 미국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환경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안보를 보장하는 미국 //

미국은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참여를 증진하며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꾸준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미국의 리더십과 헌신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견고히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외부 도발로부터 지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현지에서의 일관된 상호 작용으로 파트너십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에 전진 배치된 미군은 한국군과 협력하여 나날이 증가하는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 그리고 더 넓은 국제 사회의 이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국 국내외 전략적 이해의 중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강국 세 나라를 자랑하는 동북아시아는 문화 자본, 기술 혁신, 글로벌 비즈니스의 국제적 중심지입니다. 더불어 이 지역은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집중된 곳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가 다수 주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하며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 전체의 번영 및 안정을 위협하는 가운데, 한반도는 이 복잡한 안보 환경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성공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역과 세계 안보에 여전히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핵탄두 개발 의지에 따라 북한은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여 2016년 한 해에만 두 번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시험의 성공 횟수가 늘어나면서 대량 살상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을 크게 진전시켰습니다. 더불어 북한은 커다란 비대칭적 이점을 제공하는 미사일, 특수 부대 및 사이버 부대 역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역 안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은, 집단 자위를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 도발 억제에 위한 다자간 노력의 최전선과 중심에 서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일본에는 또한 분쟁 시 후방 군수 지원 및 연결 고리가 될 유엔군 후방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개선되고 있는 양국 관계에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양국은 최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합의함으로써 삼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가장 긴밀한 지역 파트너인 두 나라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양

블라디보스토크

평양

서울

비무장지대

칭다오

한국

일본

도쿄

오사카

태평양

상하이

한국



한국은 미국과 파트너 관계를 지속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 한편, 더욱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폭넓은 노력의 일환으로 사드 배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역 내 경제 강국의 위치를 지키며 여러 다국적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망 //

2016년 북한은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을 크게 가속화하여 핵실험 2회, 탄도미사일 발사를 십여 차례 실시했습니다. 국제 사회는 더욱 엄격한 제재로 대응했으나 실행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모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현재,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변치 않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북한의 위협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 국가와 국민이 큰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정권과 김씨 왕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김정은은 정권 유지를 위해 3대 요소로 이루어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국내 문제에 대한 외부 간섭과 강제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개발할 필요성, 실제 또는 가상의 외부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재래식 및 비대칭적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 그리고 내부 안정을 유지하고 내부적 정권 전복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을 유지할 필요성입니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 국내 문제에 대한 외부 간섭을 막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취약한 상태와 내부 불안 가능성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김정일은 과거 공산국가의 수반들이 하나씩 몰락하는 것을 지켜봤고 북한의 공식 언론은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의 원인을 북한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즉 총알(군사력) 대신 사탕(경제 발전)을 추구한 국가들은 결국 서방에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이후 20년 동안 핵무기를 북한 체제 현상 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강화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비추어볼 때, 김정은은 체재의 생존성과 정권의 지속성에 대해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한국과 동맹국들이 명목상으로나마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아래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비핵화 한반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김정은과 북한의 지배층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내 문제에 대한 외부 간섭을 막을 수 있는 군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미국의 군사력을 충분히 견제하고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면 동맹국 모두를 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은 몇 년에 한 차례씩 이루어졌으나 2016년에는 두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유례없이 많은 탄도 미사일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최초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 시험 비행과 개발 단계에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추가 시험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2016년 3월 9일 김정은이 북한 핵 과학자와 함께 탄도 미사일 앞에서 북한이 소형 핵폭탄이라고 주장하는 물체를 살펴보고 있다.

시험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김정은은 새해 연설에서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도발은 신형 교체 연료 미사일을 시험하며 2017년에도 계속됐습니다.

북한이 핵 억제력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면 외부 침입을 억제하는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록 장비는 낡았지만 조선인민군은 그 규모만으로도 한국, 지역 내 미군, 동북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에게 큰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로 인해 자원 압박을 받고 무기 수출 역시 제한되고 있으나 김정은 정권은 재래식 역량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전투력의 상당 부분을 전진 배치하면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민군의 장사정포부대는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현대식 대도시인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부 위협에 대응한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은 특수 부대 및 사이버 역량과 같은 비대칭적 역량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수 부대는 인민군 중 최고 수준의 훈련과 장비를 갖춘 부대입니다. 공중, 바다 또는 지상을 통해 한국으로 침투할 수 있는 특수 부대는, 제한된 목표를 공격하거나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중요 인프라를 공격하는 데 동원될 수 있습니다.

도발 패턴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계속 성숙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전 요원들은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이나 컴퓨터 네트워크 도감청과 같은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작전을 통해 북한은 비대칭적이지자 부인 가능한 역량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인프라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인터넷 보급이 제한적이어서 사이버 공격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합니다.

북한의 마지막 전략적 필요는 내부적 정권 전복을 막기 위해 충분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의 달성은 북한 자원과 핵 개발을 제한하는 국제적 경제 제재 앞에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과거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달성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경우 정치 및 사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에도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경제 번영을 달성하는 동시에 핵 억제력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상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식 국가 배급 체제가 북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지 오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보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 정치 엘리트들의 수입을 우선시합니다. 둘째, 국민의 경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 사업 및 자유 시장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현재 이러한 조치가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불안, 지역 부패, 초기 중산층 생성과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김정은의 전반적인 전략은, 끊임없는 핵 억제력 추구가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더욱 자초함으로써 약간의 경제 성장 가능성마저 사라지게 하는 내재적인 모순에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시작된 “고난의 행군”을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 시대에 북한은 구 소비에트 블록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고난과 고립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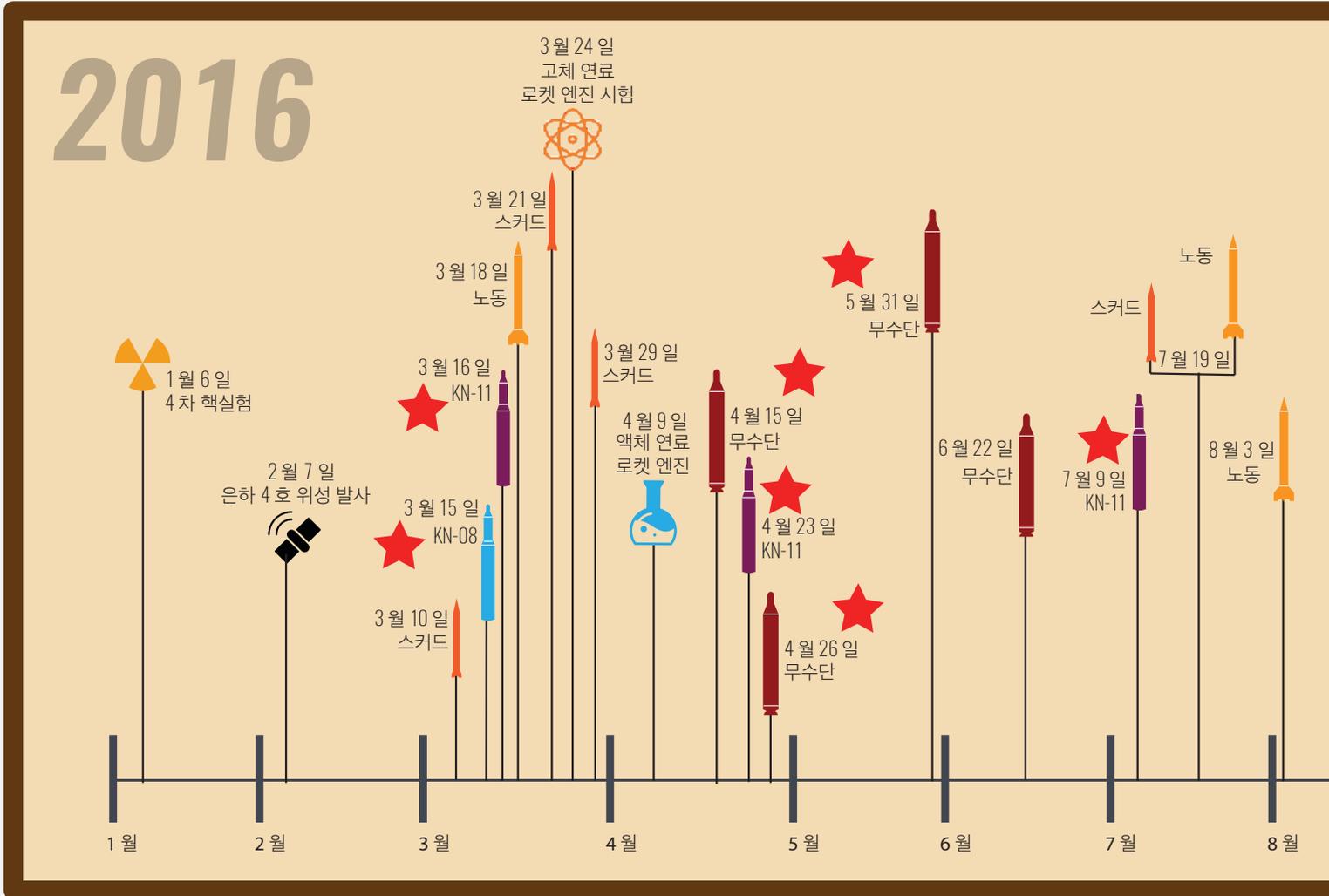
북한의 핵 역량이 김정은의 위험 계산 공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비대칭 위협 확대가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으로 김정은이 더욱 위험한 모험에 나서게 될까요? 아마도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무기에 고무된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의 꿈이었던 한반도 무력 통일을

추구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위험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북한은 인민군 현대화에 대규모로 투자하여 재래식 전투에서 한미 연합사를 무찌르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약간 덜 위험하지만 가능성이 더 높은 시나리오는 핵무기에 의지한 김정은이 한국에 제한적인 공격을 감행하며 도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핵역량이 미국과 한국의 보복 옵션을 제한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더욱 공격적인 행위를 벌이고 김씨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종종 사용해온 강압 외교의 가치를 새롭게 자신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용한 비대칭적 옵션으로 볼 때 더욱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0일 북한은 신포 북동 해역의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위협



일러스트레이션: 조슈아 바인더 (JOSHUA BINDER)

억제력의 대가 //

북한이 꾸준히 제기하는 위협은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 한국과 파병국 군인들은 매일 목숨을 걸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며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 과정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이루어진 해군 훈련 중 헬리콥터 사고로 한국 해군 3명이 사망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추모식에서 연합사 사령관 빈센트 K 브룩스 (Vincent K. Brooks) 장군과 연합사 부사령관 임호영 장군은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고 이들의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브룩스 장군이 사고 추모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느 문화에서나 애도의 소리는 같습니다. 이들 해군은 물론 수많은 장병들의 희생은 위험한 불량 정권으로부터 한국과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인지 엄중히 일깨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번영을 북한이 계속 위협하는 한, 동맹국 장병들은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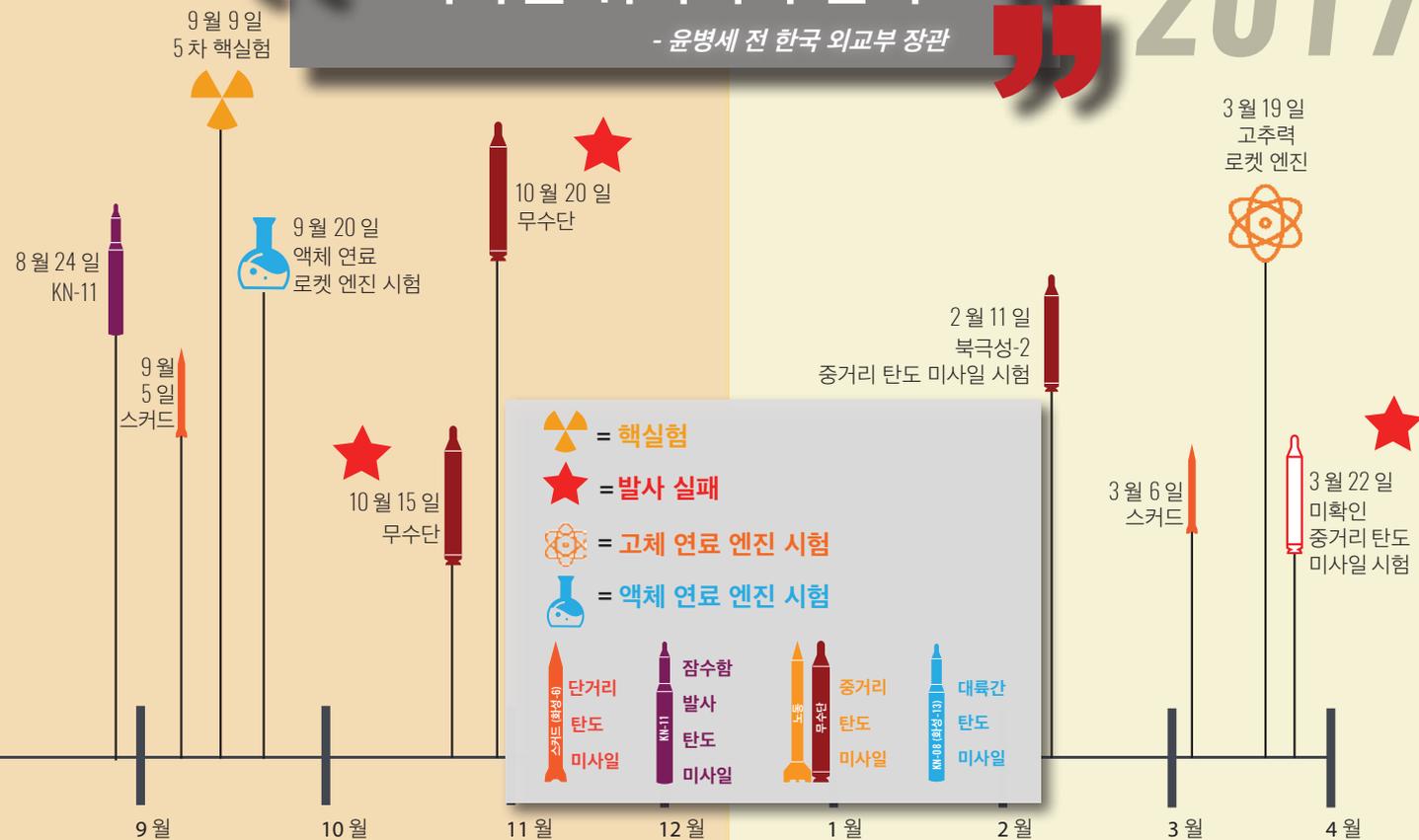
한국 해군 사진

도발 패턴

“하루하루가 쿠바
미사일 위기시와 같다”

- 윤병세 전 한국 외교부 장관

2017



한미

1 1953년 시작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신념으로 역동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지역 안보 및 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바탕으로, 제임스 매티스 (James Mattis) 미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양국의 협력은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동맹 안보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앨버 스미스 (AMBER I. SMITH) 촬영



2017년 2월 2일 서울 공군기지에서 제임스 매티스 (James Mattis) 미국방부 장관,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 한국 합참의장 이순진 장군,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K 브룩스 (Vincent K. Brooks) 장군, 마크 내퍼 (Marc Knapper)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

2016년 한 해 동안 한미동맹은 양국의 결의를 꾸준하고 분명하게 전달했고 군 사령관들에게 동맹의 강력한 화력을 시연했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켰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이 21세기에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매티스 장관도 이에 “한미동맹은 상호 헌신과 존중의 증거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입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작년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이동 수단 개발을 부단히 추진하며 두 번의 핵실험과 20여 차례의 탄도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동맹은 미국의 강력한 억제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국의 한국 방위 약속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미동맹은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호위하는 가운데 미 공군 B-1B 초음속 폭격기 두 대가 오산 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한 것을 비롯하여 유연한 억제 작전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전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미 정부의 최고위급에서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더불어 한미동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속히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체계는 기존 패트리엇 (Patriot) 포대를 보완함으로써 북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다중 방어를 강화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2015년 제 47차 안보 협력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동맹은 한미 연합사 전시작전통제권 (OPCON) 의 조건부 이전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의 진행과 실행을 위해 주한미군, 한미 양국 국방부의 관련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 등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참가하는 양국 협력 그룹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제 10차 한미 통합 국방회담에서는 포괄적 협상을 통해 지속, 탄약, 전략 기반 문서 업데이트,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후 한미동맹 지휘 체계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작전 진행

한미동맹은 또한 지역 안보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키 리졸브 (KEY RESOLVE) 와 울지 프리덤 가디언 (ULCHI FREEDOM GUARDIAN) 으로 알려진 대규모 합동 사령부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대의 전산 지휘 통제 훈련으로서 꾸준한 한미 파트너십과 지역 안보에 대한 양국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2016년 미국은 키 리졸브 훈련과 합동 야외기동훈련 (FTX) 인 독수리 훈련 (FOAL EAGLE) 에 투입하는 병력 및 장비를 과거에 비해 두 배로 늘려 전투항공여단, 해병여단, 항공모함전단, 핵추진 잠수함, 공중급유기를 투입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또한 키 리졸브 16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상호운용성과 조직화 개선을 목표로 울지 프리덤 가디언 16을 실시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동맹



미 공군 사진

2016년 1월 28일 서산 공군기지에서 버디 윙 (Buddy Wing) 16-1 훈련 중 이륙 전에 이야기를 나누는 미 공군 제 36비행단과 한국 공군 제 121비행단의 조종사들.

3자 협력 확대를 통한 동맹 강화

올해 한미동맹은 일본과의 삼자 방위 협력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정치적 난관이 있었지만 수 차례에 걸친 북한의 도발 후 삼자 외교 및 국방 협력이 신속히 진행됐으며, 미사일 경보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 (PACIFIC DRAGON) 을 통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한미동맹의 전체적인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날이 커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위협을 줄이기 위한 삼자 대잠수함전 훈련과 해군 협력 증대도 진행 중입니다.



시상 촬영

2016년 9월 21일 한반도를 가르는 비무장지대 근처를 비행 중인 B-1B 랜서 (Lancer) 2대, F-15K 슬램 이글 (Slam Eagle) 2대, F-16 2대.

한국의 노력: 요약 정보

한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을 통해 한반도 주둔 미군의 비인적주둔비용 중 약 41%를 부담함으로써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군을 서울 및 북부 지역에서 미 육군 개리슨 험프리스 (Garrison Humphreys) 와 기타 남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비용 총 107억 달러 중 92%를 부담하여 기여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민총생산의 2.6%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태평양과 NATO 내 많은 동맹국의 규모를 뛰어넘는 것이며 비무장지대 배치 병력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MA 에 따라 한국은 3대 비용 분담 분야인 한국인 인력, 물류, 그리고 한국이 자금을 제공하는 건설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사령부가 3대 분야의 비용을 최종 할당합니다. 2017년 한국의 SMA 분담비는 약 8억 1700만 달러였습니다.



앨버트 스미스 (ALBERT I. SMITH) 병장

2017년 2월 3일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회담 중인 제임스 매티스 (James Mattis) 미국방부 장관.

오늘날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서울 내 미군 병력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기지는 계속 폐쇄하고 한국에게 통제권을 넘기면서, 오랫동안 주둔해온 평택과 대구를 허브로 하여 부대를 재배치하고 재통합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다져온 변치 않는 “같이 갑시다” 정신으로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한미

제 7공군 홍보부 사진

한반도와 지역에 북한이 가하고 있는 위협은 과장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불과 5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세계 4위 규모의 재래식 군대가 위치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충돌 가능성을 매일 직면하며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은 명령을 받으면 즉시 한반도를 지킬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꾸준한 역량 현대화와 지속적인 상호운용성 강화 노력이 뒷받침하는 한미동맹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훌륭히 대응하기 위해 강력하고 유연한 파트너십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6일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첫 번째 구성요소.

한미동맹 역량

한반도와 지역에서 나날이 커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통합된 다중 방어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수년 동안 미국은 사거리, 높이, 기동성, 탐지 성능 향상으로 적 탄도 미사일 격추 능력을 높인 3세대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PAC-3)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로 전역 탄도 미사일을 전담 검색하고 특정 고도에서 화학 탄두나 소군탄 방출 미사일을 파괴하는 “킵아웃(keepout) 고도”를 유지함으로써 지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탄도 미사일 방어(BMD)용 작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PAC-2를 PAC-3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며, 이것이 미국 현 PAC-3과 연계되면 한반도 전역에서 미사일 방어체계의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확대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은 2016년 7월 협의를 통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격 파괴 방식을 사용하여 고고도에서 종말 단계의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제작된 이 체계는 적의 대량 살상 무기가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견고한 협력, 미래 지향적 정책, 강력한 신뢰의

산물입니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전용 체계로서, 분쟁 발생 시 기존의 한미동맹 BMD 역량에 추가 방어층을 제공하여 약 1000만 명의 인구는 물론 주요 항구와 요충지를 보호하게 됩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미국의 기여와 더불어, 한국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자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체계는 현재 개발 중이며, 한국의 킬 체인(Kill Chain)/대공 및 미사일 방어 개념에 통합되어 한반도 전역에 추가 방어 역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 감시, 정찰 분야(ISR)의 첨단 역량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공군은 공중 경보 및 통제 시스템 항공기로 미국의 E-3 센트리(Sentry)와 한국의 E-737 피스 아이(Peace Ey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전장을 통제하기 위한 연합 작전을 실시하는 데 필수적인 장거리 전천후 감시, 지휘, 통제, 통신을 제공합니다.

ISR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RQ-4 글로벌 호크(Global Hawk) 고고도 장거리 무인 항공기(UAV)를

역량

다니엘 S 윌러비 (DANIEL S. WILLOUGHBY) 일병



2016년 11월 1일 탄도 미사일 잠수함 USS 펜실베이니아 (Pennsylvania) 호의 한반도 방문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여러 훈련, 작전, 기타 협력을 보완함과 동시에 양국 동맹에 대한 미국의 다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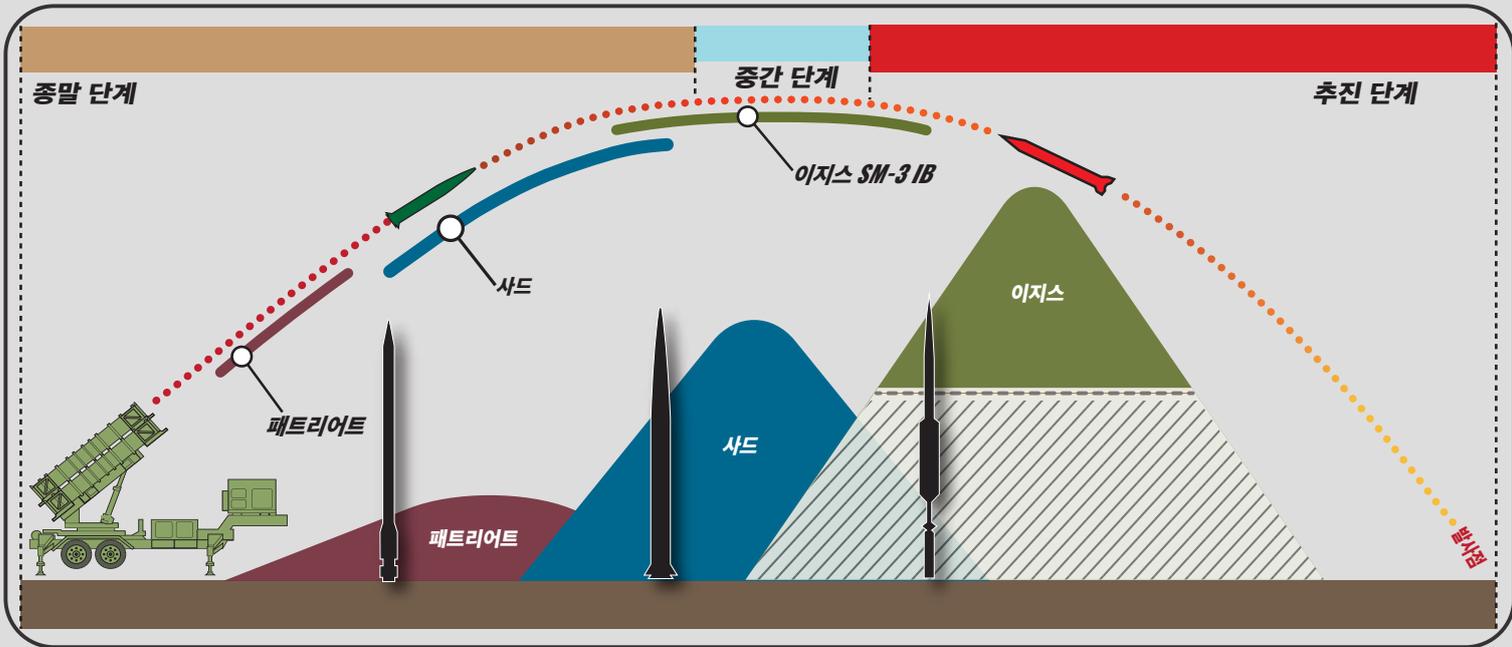
구매했습니다. 고해상도 합성 레이더, 원거리 센서, 긴 비행 시간을 갖춘 글로벌 호크는 매일 수천 제곱킬로미터를 감시하고 탁월한 정찰 및 정보 역량을 제공하여 더욱 정밀한 조준을 가능케 함으로써 아군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자체적으로 중고도 UAV (MUAV) 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MUAV 가 한미동맹 ISR 체계에 통합되면, 전투 공간을 준비하고 한반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데 필요한 값진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검증된 대잠수함전 (ASW) 체계를 통해 한미동맹은 한국 수역에서 북한 잠수함 침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P-3 오리온 (Orion) 과 미국의 P-8 포세이돈 (Poseidon) 을 배치하여 ASW 역량과 탐지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북한 잠수함을 수색, 탐지, 파괴할 수 있는 경량 어뢰, 소노부이, 디핑 소나를 갖춘 영국제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Agusta Westland) 159 와일드캣 (Wildcat) 헬리콥터도 구매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역량을 기존 수상함 및 잠수함과 연계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미동맹은 전투 작전 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 타격 역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를 추가하여 성능이 개량된 한국의 KF-16 은 요격 가능성이 낮고 재밍 내성이 높으며 교전 거리가 탁월하여, 탐지에 앞서 사전에 목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KF-16에 장착됨으로써, 한미동맹의 공중 타격 역량에 뛰어난 장거리 타격 무기가 추가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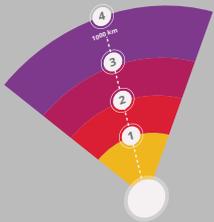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조슈아 바인더 (JOSHUA BINDER)



사드는 대기권 내외에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다른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상호운용될 수 있고 이동성이 높으며 전 세계에 배치 가능합니다.



X-밴드 지상 기반 레이더를 통해 최고 1000km 범위 내에 접근하는 미사일을 탐지하고 위협의 유형과 수준을 파악합니다.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 비행 속도:

마하 8 이상

제 7공군 홍보부 사진

사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

2016년 3월 6일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 한미 동맹의 결정 사항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사드 간략 정보

사드는 전술 및 광역 탄도 미사일과 같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인구 밀집 지역과 고가치 인프라를 보호하는 미 육군의 이동형 방어 무기 체계입니다. 사드는 종합 BMD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이미 배치된 기존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다중 방어막을 구성합니다.

사드의 최대 고도는 150km, 최대 사거리는 200km로서,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거나 앞으로 배치될 어떤 체계보다도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넓은 지역의 중요 목표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어합니다.

사드의 탄두를 탑재하지 않고 직격 파괴 방식을 사용하여 운동 에너지로 적 미사일을 파괴합니다.

“미태평양 사령부와 국방부 장관의 사드 체계 적시 배치는 우리 부대가 병력 증강이나 첨단 역량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다는 강한 신뢰를 줍니다”

- 빈센트 K 브룩스 (Vincent K. Brooks) 장군



현대화 //

한 국은 SM-3 또는 SM-6을 발사하고 적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현대식 수직 발사체계를 장착한 신형 KDX-III 이지스 (AEGIS) 구축함을 건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신형 구축함은 미국의 기존 이지스 전함과 함께 강력한 해양 방어를 형성하고 지역 해양 안보를 유지합니다.

5세대 전투기인 F-35 합동 타격기가 미국과 한국 전력에 추가되면 한미동맹의 공중 역량이 더욱 현대화될 것입니다. 한미 F-35 사이의 상호운용성이 향상되면 공대공 전투, 공대지 타격, 전자전, 전통적으로 특수 항공기가 수행하던 ISR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임무 성공률과 생존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첨단 스텔스 역량이 전투기의 속도 및 민첩성과 결합된 F-35는 적 공격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군의 공군력에 막강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육군은 아파치 대대 2개를 추가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 기갑 부대를 압도하는 한미동맹의 능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2017년 3월 14일 태평양 상공을 비행 중인 미 해병대 F-35B 라이트닝 (Lightning) II. 이 항공기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초음속 단거리 수직 이착륙기다.



존 린즈마이어 (JOHN LINZMEIER) 상병

발전 //

북 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변화 및 현대화 능력이 지역과 세계 안보를 강화했지만, 이러한 성공은 장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상호운용성과 조직 결합 운영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막강한 힘은 인력과 시스템 역량을 완벽히 통합하는 고유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한미동맹은 함께 협력하여 “오늘 밤에 싸워도” 적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5000만 인구를 가진 역동적인 나라 한국은 미국의 국익, 지역 평화, 세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종종 북한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논의를 이에 국한시킬 경우,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자 역사상 가장 놀라운 국가적 성공을 이룬 한국의 훨씬 크고 감동적이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묻혀버리고 맙니다.

한국



2016년 3월 26일 한국과 북한 사이에 국제 협상이 진행 중인 유엔사 군사 정전 위원회 건물 근처의 공동경비구역 한국측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한국군.

중요한 시기, 중요한 동맹

현재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 규모의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세계 선도 국가로서의 한국의 지위는 역사적인 성과로서, 1953년 전쟁으로 경제를 비롯한 모든 것이 파괴됐을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미국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한국은 경제 성장을 달성했고 이후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20세기 후반 한국은 놀랍고 빠른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기여하는 나라로 빠르게 전환한 점을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복잡성이 더해가는 전략 환경, 사회 변화, 다면적 국제 도전에 직면하면서 기적을 일군 능력이 다시 시험 받고 있습니다. 강인한 한국인들은 미국의 지원과 파트너십을 통해 21 세기 도전을 극복할 자세를 굳건히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안보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지역 패권 경쟁의 균형을 유지하며 한국의 지속적인 번영에 필요한 안정을 보장하는 안보의 초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정서를 공유하며 한미동맹이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임을 재확인해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가운데 군사 역량 강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사이에만

한국은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항공기, 패트리엇 성능 개량-3 미사일 방어체계, F-35A 합동 타격기, AH-64E 아파치 중공격용 헬리콥터를 구매하고 전투체계 장착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자체 첨단 군사 역량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차기 호위함 (FXX) 사업을 통해 기존 함선을 새로운 급의 스텔스 기능 탑재 첨단 함선으로 교체하는 한편 탐지, 요격, 대응 프로그램 향상 및 개발을 추진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억제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한미 합동 전투력을 크게 강화할 전망입니다.

세계에서 한국의 역할

한편 한국은 “미들파워 (Middle Power)” 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참여를 추진하여 안정, 성장, 국제 규범과 관련된 사안에서 꾸준히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까지 12개 나라에 평화유지군 1106명을 파병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재건을 위해 자금을 지원했으며 필리핀과 서아프리카에 재해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은 군사 훈련 참여, 안보 지원 및 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재해 구호를 비롯한 안보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삼국 미사일 훈련을 실시한 후 한국과 일본은 11월에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간략 정보 //



개요

- 면적: 99,720km² (인디애나 주와 비슷), 인구 5100만 명입니다.



경제

- 외환 보유고 7위, 국내총생산 (GDP) 세계 11위입니다.



산업

- 삼성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업체입니다.
- 한국은 세계 5위 수출국으로서 지난 10년 동안 양방향 무역이 84%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연결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인 84.8%가 광대역 전용선을 사용합니다.



여행 및 관광

-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의 수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국제적 위상

- 한국은 12개국에 평화유지군 1106명을 파병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조슈아 바인더 (JOSHUA BINDER)



2016년 4월 16일 남수단 현지 주민에게 경작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는 한빛 부대원.

더불어 한국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핵확산, 국제 개발, 여성 문제부터 우주, 사이버 보안, 세계 보건 위기, 해적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2016년 가을, 정부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표현했고 한국의 시민 사회는 심각한 차이점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며 전 과정에 걸쳐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기사 작성 시점에서 국내 정치적 상황의 영향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으나, 한국은 한미동맹처럼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힘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위협 하에서도 민주적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독재와 가난에서 민주주의와 번영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한국은, 이번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강력한 미들파워로 거듭날 것이 확실합니다.

한국 - 미국의 현명한 투자

60여 년 전 미국의 투자가 이루어진 이래 한미동맹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는 동시에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중요한 국제 안보 사안에서 점차 큰 폭으로 기여하고 있는 활기찬 동맹국입니다.

2018년 동계 올림픽 //



2018년 한국은 제 23회 동계 올림픽을 PyeongChang 2018 개최합니다.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에서 열릴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동계 올림픽이자 지금까지 한국에서 개최된 두 번째 올림픽이 됩니다. 이는 엄청난 성과로서, 한국이 국제 문제에서 당당히 더 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한미동맹이 발전시킨 번영과 안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은 전 세계인을 환영하고 한국의 이야기를 한반도 너머로 널리 전파할 멋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유엔사 (UNITED NATIONS



웨슬리 브리드러브 (WESLEY BREEDLOVE) 상병



2016년 11월 11일 한국전 중 전사한 유엔사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부산 유엔 기념 공원에 모인 21개국 대표단.

2016년 11월 8일 무적의 방패 훈련을 위해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한 영국 공군 스티븐 힐리어 (Stephen Hillier) 참모총장, 한국 공군 작전사령관 원인철 중장, 미 7공군 사령관 토마스 W 버거슨 (Thomas W. Bergeson) 중장. 1953년 이후 처음으로 영국 전투기가 이 훈련에 참가했다.



딜리안 배먼 (DILLIAN BAMMAN) 일병

유엔사는 설립 이래 약 70년 간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을 지키기 위해 나선 21개 나라의 유산을 바탕으로 세워진 유엔사는, 북한의 도발을 격퇴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는 미국 주도 다국적 전투 사령부로서 그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유엔사는 1953년 한국전 휴전협정에 서명한 이래 미국, 한국, 유엔 회원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아군의 휴전협정 준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사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6개 파병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한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유엔헌장 제 7장 평화 규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이러한 지속적인 의지가 적대 행위를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원칙적으로 군사분계선 남쪽에 위치한 모든 아군의 휴전협정 준수를 보장하면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 군사

작전이 필요한 경우 유엔군을 사령부에 수용, 대기 사령부에 통합하기 위한 다국적 상설 프레임워크도 제공합니다. 유엔사 회원국은 한국은 물론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또한 일본에 위치한 7개 유엔 지정 기지에서 주요 군수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사는 활성화 활동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이 지역에서 한미동맹이 적응하고 지속하도록 전역 방어 노력을 펼치는 데 있어 파병국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유엔사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유엔사가 유엔 평화유지군 (PKO) 이라는 것입니다. 유엔사는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유엔헌장 제 7장에 명시된 평화 조항이 위반됐다고 국제 사회가 인정할 경우 전투에 투입된 최초의 유엔 조직입니다. 1950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83호 및 제 84호에 따라, 미국은 유엔 깃발 아래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국적 사령부를 수립하고 이를 지휘할 국제법상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휴전협정 이행은 한국 합동참모본부 (ROK JCS) 와 주한미군의



COMMAND)

국제 공조의 근거지



한강 하구의 유엔사 주도 작전//

2016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 유엔사는 한강 하구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는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이곳은 군사 통제 지역으로서 한국과 북한 군 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수백 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한강 하구로

들어왔고, 이에 유엔사 휘하 한미동맹군은 불법 조업 어선을 몰아내는 합동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유엔사 정전위원회는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휴전협정을 이행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유엔사 합동참모본부 사진

기여하는 국제 파트너의 역할을 증명했습니다. 유엔사가 지휘하는 군대는 지금도 한강 하구를 순찰하며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주권 국가 한국의 사령부로서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 서북도서를 지키는 수십만 명의 한국군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유엔사는 다수의 강력한 군대가 뒷받침하는 다국적 군 유지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유엔사 활성화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파병국은 군사 훈련 참관 및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했고 유엔사는 정보, 인력, 역량을 작전 및 계획에 더욱 폭넓게 통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엔사는 다자간 참여를 조율하고 기타 잠재적인 국제 파트너를 참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엔사는 더 나아가 주한미군과 연합사의 임무를 보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한국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역할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주한미군에 영국 해외 연락 장교가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연합사에 보다 폭넓게 참여하여 영국 인력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확보한 각각의 다국적/협력 경험을 통해 가치를 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주 및 캐나다 인력과 더불어 본부 내에서 확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의 공동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 곳곳에서 진행되는 양자, 삼자, 다자간 훈련의 증가로 다국적 통합 작전에서의 상호운용성이 빠른 속도로 일반적인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근무는 처음이지만 한국과 미국, 기타 파병국과 근무할 수 있는 기회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B 머독 (Michael B. Murdoch) 대령
영국 육군 아이리시 연대
연합사/주한미군 CJ35 해외 연락 사무실



한 미 연합사 (COMBINED FORCES)



2016년 2월 22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버디 윙(Buddy Wing) 16-2 훈련 중 한국 공군 조종사와 전술을 논의 중인 미 공군 A-10 조종사.



크리스틴 하이 (KRISTIN HIGH) 상병

2016년 7월 19일-21일 한국 토벌리 나이트메어(Nightmare) 사격장에서 이루어진 실사격 훈련 중 안전 절차 준수를 위해 한국 육군 5사단 대원과 협력 중인 제임스 트레켈(James Trekkell) 하사.



존 데핀토 (JOHN DEPINTO) 대위

한 반도를 지키겠다는 미국과 한국의 상호 의지를 한미 연합사만큼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같이 갑시다” 라는 모토 아래 연합사는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오래된 동맹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합동 사령부인 연합사는 한미동맹의 초석으로서 양국의 군사 협력을 매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합사의 임무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동맹 전략합의에 명시되어 있으며 유엔사의 지원 아래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역량이 발전하면서 한반도의 지휘 체계도 변화했습니다. 1968년 합동 작전 지휘 참모가 마련됐으며 1971년 통합 야전 본부로 성장했습니다.

잭 베시 (Jack Vessey) 장군의 지휘 아래 1978년 11월 7일 창설된 연합사는 한미동맹의 통합 군대로 활동하도록 설립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군 자원을 활용하고 동기화하고 있으며, 양국 국방부 간 국방안보협의회와 양국 합동참모본부 간 군사위원회로부터 전략적 방향과 작전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지휘 구조입니다. 이 같은 동맹 중심의 협의 과정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모든 연합사 활동이 양국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는 핵심적인 합동 지침을 연합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합사 사령관은 위기 시 한미동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한국군이나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지만, 평상시 휴전 상태에서는 연합 작전을 위한 계획, 훈련, 교리 개발을 통해 한국과 미군을 잠재적인 전시 임무를 위해 준비시키는 권한을

COMMAND) 한미동맹의 중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016년 5월 21일 미국 제 31구축함전대 소속 제 3함대 태평양 해상 그룹의 일부로 파견된 유도 미사일 구축함 USS 몸센 (Momsen) 호, 한국 구축함 ROKS 서에 류성룡호, 유도 미사일 구축함 USS 디케이더 (Decatur) 호.



제이 C 퓨 (JAY C. PUGH) 대의홍보담당 1급



갖고 있습니다. 연합사는 유엔사, 한국 합동참모본부 및 예하 부대, 주한미군과 협력하여 미국과 한국의 거대한 군사 역량을 통합함으로써, 어떠한 위협도 물리칠 수 있는 복합적이고도 효과적인 연합 지역 군대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합사 구성군은 공군, 육군, 해군, 특수 부대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합동 훈련과 사령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합사는 1년에 두 차례 사령부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ULCHI FREEDOM GUARDIAN) 과 키 리졸브 (KEY RESOLVE) 훈련을 실시하며 이는 이러한 유형의 훈련 중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같은 훈련을 통해 연합사를 지원하는 한국군과 미군은 함께 훈련하며 유사 시 한국을 지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한국의 주권과 안보에 대한 한미동맹 상호 신념의 확실한 증거로서, 양국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명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과 그 지휘 관계는 지역과 세계의 상황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40년에 걸친 한국의 발전을 인식하면서, 전략적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한국이 자국 방어를 위한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합 안보 구조를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서 70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의 자연스러운 진화가 완료될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사 시대 (1978년 이전) 와 한미 파트너십이 이루어진 연합사 시대 (1978년부터 현재) 를 거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함께 한국이 주도적으로 자국을 방어하는 시대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연합사는 단호히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할 것입니다. 연합사의 역량은 향후 여타 동맹 구조의 모범이 될 탁월한 협력 및 성취 사례로 오랫동안 남을 유산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UNITED STATES FORCES KOREA)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2016년 11월 9일 한국 제 3 함대 사령관 이성한 제독과 대화 중인 주한 미 해군 사령관 브래드 쿠퍼(Brad Cooper) 소장.



2016년 3월 9일 포항에서 진행된 상용 합동 훈련 중 한국 해병에게 지시 중인 아이제이아 키퍼 (Isaiah Kiefer) 일병.

사령부 임무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를 위해 훈련되고 준비 태세를 갖춘 군대를 유엔사와 한미 연합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최상급 사령부입니다. 미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사령부인 주한미군은 한국 합동참모본부와의 연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민첩한 군사력과 전략적 역제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상호 방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 지역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킴에 따라 주한미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철저히 훈련시켜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기 및 적대적 상황 시 주한미군은 미국 국민은 물론 지정된 제 3국 국민의 비전투원 대피와 미국 및 다국적 증강 병력의 수용, 준비, 이동, 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또한 미태평양 사령부, 기능형 전투 사령부, 미국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허용된 경우 기타 미국 기관으로의 연합사 물자 및 병력 공급 활동도 지원합니다.



2016년 10월 22일 군산 공군기지에서 구역을 확보하고 통신을 구축하는 미국 전투통제사와 한국군.





2015년 11월 1일 판문점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미군 및 한국군.

에이드리안 카디즈 (ADRIAN CADIZ) 일등상사

사령부의 중요성

2016년 주한미군은 한반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한 준비 태세와 확고한 의지를 강화하는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2016년 1월에는 B-52 스트라토포트리스 (Stratofortress), 2016년 9월에는 B-1B,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광의 앤더슨 (Andersen)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두 폭격기는 한국 F-15K 전투기와 미국 F-16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오산 공군기지 근처에서 저고도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무력 과시는 안정과 안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2016년에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중요한 양자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드 체계는 유엔 안보리 6개 결의안을 위반하며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기존의 전역 탄도 미사일 역량을 강화합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병력 대부분을 서울 이남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재배치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 첫 번째로 2016년 7월 캠프 케이시/호비 (Camp Casey/Hovey) 에 주둔하던 순환 여단전투팀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Camp Humphreys) 로 영구 이전했습니다. 이러한 부대 이전은 미군의 대규모 재배치 계획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역사에도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한편 작년에는 AH-64D 아파치 (Apache) 공격용 헬리콥터 24대로 구성된 대대를 한국에 추가로 영구 배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들 헬리콥터는 OH-58D 카이오와 워리어 (Kiowa Warrior) 헬리콥터 30대를 대체함으로써 한반도의 미군 역량을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캠프 험프리스에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사용될 착륙장 두 곳의 건설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한국군, 일본군, 미군의 삼자 회담도 진행되어 북한의 향후 도발을 억제하고 전역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옵션을 논의했습니다. 삼국의 삼자간 조치는 정보 공유와 탄도 미사일 방어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 카투사 (KATUSA) 의 역사

미 육군에 배치된 한국인 증원 병력인 카투사는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영어 구사력과 군인 자질을 갖춘 한국 군인들을 훈련시킨 후 한국에 주둔한 미 육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프로그램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미 육군 상호운용성과 기능은 물론 상호 존중과 이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투사 프로그램은 한국전 중 시작됐습니다. 한국군 재건 노력과 더불어 1950년 8월 15일 더글라스 맥아더 (Douglas MacArthur) 장군은 한국군을 미 육군 사단에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한국군 장교와 병사 8625명이 일본으로 건너가 신속히 훈련 받은 후 제7보병사단에 투입되었고 불과 몇 주 뒤 인천 상륙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전 중 총 4만 3660명의 카투사 병력이 미군과 함께 싸웠으며 이중 1만 1365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현재 카투사 프로그램은 미 8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투사 훈련병은 10.5 대 1의 확률로 추첨을 통해 선발됩니다. 카투사는 앞으로도 미군과 함께 한국을 지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최다솔 상병



2016년 12월 2일 미국과 한국 지휘관을 만나 업무와 이벤트를 논의하는 카투사 장병들.

지속되는 유산

주한미군은 한국군 및 유엔사 파병국 파트너와 60년 이상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군대는 힘을 합쳐 휴전을 유지함으로써 한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여 덕분에 한국은 튼튼한 경제를 보유한 평화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5100만 명의 한국인과 약 20만 명의 미국인을 비롯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장사포, 탄도 미사일, 핵무기, 특수부대,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J. 브리드러브 (WESLEY J. BREEDLOVE) 상병

켈시 도넬드 (KELSEY DORNFIELD) 일등병

콜빌 맥피 (COLVILLE MCFEE) 상병

2017년 2월 14일 한국의 캠프 모바일 (Camp Mobile) 에서 워리어 스트라이크 (WARRIOR STRIKE) 5 훈련 시작 중 CH-47 치누크 (Chinook) 헬리콥터에 탑승하기 위해 준비 중인 제 1보병사단 제 1 무장여단 전투팀 제 16보병연대 대원들.



미 8군 (8TH ARMY) 역량 있는 연합군

워렌 W 라이트 주니어 (WARREN W. WRIGHT) 하사

확고한 한미동맹

미 8군은 한국군과 함께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동맹 속에서 연합 능력 강화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준비태세를 최우선 목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략 다이제스트

WWW.USFK.MIL

한 국전 이래 미 8군은 한국 육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한반도 내 한미동맹 지상군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이 치명적이고 고도로 훈련된 현대화 군대로 자리잡음에 따라, 미 8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국을 지키기 위한 연합 방위 및 합동 전투력 개발로 초점을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의 적극적인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에 대응하여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을 가장 명확히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한미연합사단입니다. 2015년 창설된 연합사단은 한국 제 8보병사단과 미국 제 2보병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휴전 시에는 연합 참모 구조를 유지하고 분쟁 시에는 한국군 부대를 완전히 통합하게 됩니다. 연합사단은 양국 육군이 연합 환경에서 함께 훈련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강력한 단결 메시지를 보내면서 상호운용성을 강화했습니다.

연합사단은 2015년 10월 사단 전투력 훈련 인증을 마친 데 이어 2016년에는 키리졸브 (KEY RESOLVE) 2016 과 울지 프리덤 가디언 (ULCHI FREEDOM GUARDIAN) 2016을 비롯한 여러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들 훈련은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최대 규모의 훈련으로, 연합사단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연합 기동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의 창설도 갈수록 공고해지는 한국군과 미군의 관계를



2016년 10월 14일 야간 공습을 준비 중인 제 2 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제 2 전투항공여단 제 2항공연대 제 2강습대대와 한국 육군 제 603강습대대.



조나선 카메라 (JONATHAN CAMIRE) 대위

2017년 2월 16일 워리어 스트라이크 (WARRIOR STRIKE) 5 훈련 중 적의 대량 살상 무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파괴하는 훈련을 진행 중인 미국 제1 보병사단 제1 무장여단 전투팀 제 16보병연대 대원과 한국 군인.

카투사 박준규 상병

보여줍니다. 이 사령부는 전시 지상군의 임무 지휘 본부 역할을 하며 지상군을 동기화하여 한국군과 미군 사이의 공조를 강화합니다. 앞으로 한국군과 미군은 호국-17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 구조를 시험할 계획입니다.

순환 배치를 통한 준비태세 강화

2013년부터 미 8군은 미 육군의 지역 중심 순환 부대를 통합함으로써,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잘 훈련되고 준비된 병력을 주한미군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순환 부대는 전략적 지상군 개념에 따라 전 세계의 전략적 요지에 순환 배치됨으로써 육군 전체의 준비태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로 훈련된 부대를 미국 본토 외부로 배치하여 육군의 글로벌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미 8군으로 하여금 접수, 주둔, 이동, 한국 전역 통합을 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 8군은 두 차례 부대 교대를 실시했습니다. 2월에는 텍사스 주 포트 후드 (Fort Hood) 에 주둔하던 제 1기병사단 제 1기갑여단전투팀의 “아이언호스 (Ironhorse)” 부대가 도착하여 제 1기병사단 제 2기갑여단전투팀의 “블랙 잭 (Black Jack)” 여단과 교대했습니다. 아이언호스 부대는 로드리게스 (Rodriguez) 사격장에서 한국 육군과 연합 실사격 훈련에 참여하고 한반도 전역 훈련을 두 차례 마친

후 10 월 캔사스 주 포트 라일리 (Fort Riley) 의 제 1보병사단 제 1기갑여단전투팀의 “데빌 (Devil)” 여단과 교대했습니다.

또한 지난 10 월 미 8군은 오클라호마 주 포트 실 (Fort Sill) 에 주둔하던 제 18 야전포병연대 제 2대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다연장 로켓대대는 제 13야전포병연대 제 3대대와 교대하였으며, 앞으로 연합사단 제 210야전포병연대의 대응 화력으로서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 8군과 순환 부대의 완벽한 통합은 한미동맹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미 육군의 장기 전략 목표를 지원하며, 부대원 안정성 보장은 물론 한반도에 잘 훈련되고 준비 태세를 갖춘 병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군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힘

미 8군에 흥미진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군과 함께 미 8군은 전술 현대화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사드 배치 결정은 탄도 미사일에 대한 다중 방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불어 최신형 아파치 (Apache) 공격용 헬리콥터와 그레이 이글 (Grey Eagle) 무인 항공기의 도입으로 항공 전력이 강화됐습니다.

지속적인 전역 변화 프로그램을 통해 미 육군 험프리스(평택) 기지와 대구 지역 기지를 허브로 하는 통폐합을 진행하여 미군 구조를 더욱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재배치로 한국 내 기지 수를 줄여 미군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강화된 방어력과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조치로 준비 태세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변화가 완료되면 미 8군은 주한미군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게 됩니다. 캠프 험프리스의 공동 개발은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미 8군은



작전 환경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역량과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 8군은 연합 및 통합 전투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꾸준히 모색함으로써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뒷받침하는 안보를 꾸준히 달성하며 한국 육군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 7

공군 (7AF)



막강한 대응 태세: 한반도상에서 제공권

2016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속에서도 미 7공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대응 전력으로서 굳건히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미 7공군은 오늘의 전장에서 우세를 확보한 데 만족하지 않고 내일의 전장에서도 우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 7공군 고유의 기술은 연합 및 합동 파트너와 협력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

미 7공군의 진정한 힘은 대원들에게 있으며, 이들은 항공 작전을 계획하고 연합 편대를 매일 발진시킴으로써 북한 도발 격퇴 명령 시 복잡하고 치열한 전장에서 임무를 완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 7공군은 한국 공군과 협력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6년 북한 도발 시 양국의 무력시위를 세 차례 실행하고 한미동맹의 결의와 준비태세를 과시하는 데 모든 구성군 장병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군은 전역안보전략의 일부로 전투기 편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 부대는 준비태세를 강화하며

미 7공군이 언제라도 적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 7공군의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2016년 전반에 걸쳐 사령부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여기에는 통신, 탄약, 보관, 물자, 비행장 피해 수리 역량 개선이 포함됐습니다. 공군 기획관은 항공임무명령을 개정하고 울지 프리덤 가디언 (ULCHI FREEDOM GUARDIAN) 훈련을 통해 사이버 전을 계획에 더욱 강력히 통합했으며 전역 전반에 걸쳐 지휘와 통제 연결성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오산 공군기지의 새로운 활주로 공사 5년 프로젝트가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이 활주로는 연합사의 제공권 확보력 및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 7공군의 전투력 극대화

한국 공군과 함께 미 7공군은 2016년 다양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 (VIGILANT ACE) 훈련의 24시간 출동 및 기지 방어 작전부터 맥스 썬더 (MAX THUNDER) 훈련의 정보, 감시, 정찰 관련 동적 타게팅에 이르기까지, 한미 연합 공군은 훈련을 통해 연합사 사령관의 목표를 지원하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열리는 연례 비행 훈련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맥스 썬더-16 에서는 1500명 이상의 대원이 900회 출격을 실시하며 공군력 통합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기회를 통해 미 공군과 한국 공군은 고도로 까다로운 시나리오에서 함께 계획하고 브리핑하고 실행하고 보고함으로써, 전투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공군이 합동 공격, 차단, 근접 공중





(상단 및 하단) 2016년 5월 9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베벌리 허드 (BEVERLY HERD) 16-01 훈련 중 "엘리펀트 워크 (Elephant Walk)" 를 실행 중인 A-10 썬더볼트 (Thunderbolt) II 와 F-16 파이팅 팰콘 (Fighting Falcon).



PACOM 홍보부 사진

딜리안 배먼 (DILLIAN BAMMAN) 상병

지원, 대규모 군 투입을 실행한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RED FLAG ALASKA) 훈련을 위한 한미 연합군의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한반도 외부 배치와 동시에 미 7공군은 F-16 으로 구성된 전역안보전략과 9월 B-1B 폭격기 비행을 한반도상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한반도 외부의 무기 체계를 동원하여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능력과 미국의 강력한 한국 방어 의지를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작년에는 공군 훈련이 확대되어 항공운용성 교류 훈련인 인빈시블 실드 (INVINCIBLE SHIELD) 가 실시되었으며, 여기에 영국 공군이 195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인력과 항공기를 동원해 참여했습니다. 미 공군, 영국 공군, 한국 공군은 힘을 합쳐 태평양에서의 상호운용성과 전투력을 개선했습니다.

공군 장병과 가족을 위한 복지후생

미 7공군은 공군 장병과 가족의 복지후생을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장병과 가족들을 위한 기반 시설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10여 곳의 시설 업그레이드를 비롯한 다년간의 전략적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산

2016년 북한은 핵과 탄도 미사일 시험으로 안보와 안정에 큰 위협을 안겼습니다. 미 7공군 장병들은 이러한 도전에 맞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 7공군은 연합 및 동맹 파트너와 협력하여 한반도의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민첩성과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군기지에 만이천 제곱미터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했으며, 이는 여러 연령대의 학생을 교육하는 21세기 프로그램으로는 한국 최초로 설립된 것입니다. 모든 부대의 지휘관들이 모든 단계의 지도자와 함께, 장병들이 직업적 성장은 물론 개인적 발전을 후원하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트래비스 에드워즈 (TRAVIS EDWARDS) 중사





자갈섬 (JAGAL ISLAND) 앞바다
USS 로널드 레이건 (CVN 76) 항공모함

2016년 10월 14일 불굴의 의지 (INVINCIBLE SPIRIT) 훈련 중 제 5항공모함전단 및 한국 해군 전함과 대형을 이루어 이동 중인 해군 유일의 전진 배치 항공모함 USS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 호.

주한 미 해군



주한 미 해군 사령부는 한국에 주둔한 미 해군의 대표자로서, 해군 관련 사안에서 리더십과 전문성을 제공하며 기관 및 작전 효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 해군 사령부는 한국에 주둔한 미 해군의 지역 사령부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지역 군 사령관들에게 해군 관련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 해군 사령부의 한반도 주둔은 1957년 시작됐으며 유엔사의 임무를 지원하고 한국 해군의 조직, 훈련, 행정, 준비태세를 돕기 위해 창설됐습니다. 현재 주한 미 해군 사령부는 한국 기지 내에 위치한 유일한 미군 구성요소로, 2016년 2월 19일 한국의 부산 해군기지에 본부를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에는

주한미군, 미 7함대, 한국 해군의 사령관들이 참석했으며 이로써 주한 미 해군 사령부가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서울 소재 미국 기지가 아닌 다른 곳에 본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70여 명의 미 해군 장병, 군무원, 가족들이 부산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배치된 해군 장병과 군무원은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등지에서 생활하며 부산의 모든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해군 자녀들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어린이들이 함께 성장하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부를 이전함에 따라 미 해군과 한국 해군 사이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이 조치로 이미 두 해군 사이에는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잔여 인력을 캠프 험프리스 (Camp Humphreys) 로 계속 이전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 해군 사령부의 부산 이전은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양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결국 주한 미 해군 사령부는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한국 해군과

네이선 버크 (NATHAN BURKE) 촬영



2016년 10월 14일 불굴의 의지 (INVINCIBLE SPIRIT) 훈련 중 바이스 (Vice) 항공모함전단 소속 전함과 대형을 이룬 한국 세종대왕호 (중앙).

네이선 버크 (NATHAN BURKE) 촬영



2016년 10월 13일 불굴의 의지 (INVINCIBLE SPIRIT) 훈련 중 USS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 호 격납고에서 F/A-18F 슈퍼 호넷 (Super Hornet) 의 주 타이어 마운트에 내측 및 외측 베어링을 설치하는 존 디와 (John Diwa) 하사.

앤드류 슈나이더 (ANDREW SCHNEIDER) 촬영



2016년 10월 13일 불굴의 의지 (INVINCIBLE SPIRIT) 훈련 중 해상 재보급에 앞서 타이콘데로가 (Ticonderoga) 급 유도 미사일 순항함 USS 찬슬러즈빌 (Chancellorsville) 호에 승선하여 방위를 잡는 카일 펀케트 (Kyle Punkett) 소위.

(CNFK)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데 있어 최고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한 미 해군 사령부와 한국 해군은 1년에 30여 차례 함선 방문, 훈련, 심포지엄은 물론 한미동맹 강화 및 변화, 휴전 유지, 군대 유지를 위한 상세 계획을 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함대와 미 7함대 사령관이 공동 의장으로 있는 한미 대잠전 협력 위원회는 해상, 수중, 공중을 비롯한 모든 주요 전투 영역에서 양국 해군의 다양한 노력을 동기화하기 위해 2014년 발족했습니다. 또한 양국 해군은 함께 협력하여 사령부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ULCHI FREEDOM GUARDIAN) 과 키 리졸브 (KEY RESOLVE) 그리고 야외기동훈련 (FTX) 인 독수리 훈련 (FOAL EAGLE) 을

비롯한 20여 차례의 양자 및 다자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양국 해군은 대잠수함전, 공통 전술 및 기동, 구호 작전, 기뢰전, 항구 수복 작전을 비롯한 전 영역의 해양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가운데 유일하게 전진 배치된 USS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 호를 비롯한 정기적인 전함 방문은, 전역 안보 협력 참여와 지역사회 교류 행사를 통해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 해군과 한국 해군은 유엔사 활성화를 위한 사령부 노력의 핵심 구성 요소로, 해양 기뢰전 작전 전반에 걸친 능력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연례

연합 기뢰전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한 미 해군 사령부는 연례 유엔사 해군 구성군 사령관 기뢰 대항책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한국 해군 제 5전단은 다국적 기뢰전 훈련인 클리어 호라이즌 (CLEAR HORIZON) 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한국에 주둔하고 휴전을 유지하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대화를 장려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자유 무역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 해병대 (MARFORK)



에릭 로아카 (ERICK LOARCA) 타평양 해병대 상병

2016년 4월 2일 한국에서 KMEP 훈련에서 한국 해병과 함께 도심 작전을 훈련 중인 미 제3해병 제1대대 대원.

주한 미 해병대는 주한미군과 유엔사를 위한 미 해병대 구성군입니다. 주한 미 해병대 사령부는 주한미군과 유엔사에 배치된 모든 미 해병대를 지휘하고, 주한미군과 유엔사에게 미 해병대의 역량, 지원, 올바른 활용에 대해 조언하며,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 해병대를 신속히 한반도에 투입하여 한국 방어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주한 미 해병대 사령부는 한국 해병대 사령부와의 관계에서 미 해병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 해병대는 동맹군과 함께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력, 계획, 훈련함으로써 한국 해병대와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본부는 연합 훈련 목표 등 관련 사안의 협력을 통해 한국 해병대 역량을 강화하고 상륙 작전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 해병대의 고위급

지휘관들은 정기적으로 회동하며 서로의 비전과 의도를 명확히 파악 및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 해병대는 한국에서 순환 훈련을 실시하는 미국 해병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휘중점에 따라 연합 환경에서 한미 해병대의 훈련 극대화를 추구하는 연중 프로그램인 한국 해병 교환 프로그램 (KMEP) 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016년 주한 미 해병대는 하와이 주 캠프 스미스 (Camp Smith) 에 위치한 태평양 해병대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에 위치한 제3해병원정군과 협력하여 21차례의 KMEP 훈련을 조율하고 실행했으며, 여기에는 소대부터 대대까지 참여하고 거의 모든 영역의 군사 작전을 다루었습니다. 이 훈련은 한국 내 여러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엄격하고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믿음과 신뢰를 한국 해병대와 쌓으면서 미국 해병대가 한반도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엔사 해병 구성군인 주한 미 해병대는 다른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의 군대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위기 시 이들을 유엔사에 통합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유엔사 파병국이나 다른 나라가 한국에 군대를 보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주한 미 해병대는 위기 중 도착하는 상륙전 부대의 통합을 위해 사령관에게 즉시 조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륙군에는 해병대뿐 아니라 파병용 공군 및 지상군을 비롯한 기타 동맹국 부대도 포함됩니다.

주한 미 해병대는 해병대의 단결 정신과 상륙 전문성뿐만 아니라 미 해병대 고유의 전통도 한반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10일 주한 미 해병대는 제 241주년 미 해병대창설 기념식을 서울에서 개최하며 유구한 전통을 되새겼습니다. 서울 워커히에서 열린 이 기념식에서 주한 미 해병대는 한미동맹 양측의 고위 민간인과 군 지휘관을 비롯한 400여 명의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한반도에 주둔한 다른 군대에 비해 작을지 모르지만 주한 미 해병대는 “해병대” 를 상징하는 민첩성과 열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우정을 쌓으며 한미동맹을 유지 및 개선하고 한국 해병대와 혹독한 훈련을 통해 작전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주한 미 해병대는 어떠한 위협도 물리칠 수 있는 준비 태세와 필수 역량을 갖춘 상륙군으로서 부단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카메론 다루프 (CAMERON DARROUGH) 일병



2016년 10월 3일 한국 백령도에서 실시된 KMEP 16-15 훈련에서 한국 해병과 훈련 중인 미 해병.

조셉 산체스 (JOSEPH SANCHEZ) 병장



2016년 3월 11일 한국 포항 근처에서 실시된 쌍용 16 훈련에서 상륙 훈련 중인 미 제 1해병사단 제 1전차대대 위기대응중대 해병.

카메론 다루프 (CAMERON DARROUGH) 일병



2016년 10월 20일 한국 포항 외곽에서 실시된 호국 훈련 중 한국 제 1해병 제 31대대 제 2중대 해병과 수색 훈련 중인 미 제 2해병 제 3대대 리마(Lima) 중대 해병.

아이작 아이바라 (ISAAC IBARRA) 병장



2016년 4월 6일 한국에서 실시된 KMEP 훈련 중 실사격 훈련장에서 특수 조준경이 장착된 M107 50 구경을 작동 중인 미 해병과 한국 해병.



주한 미 특전사령부 (SOCKOR)

주한 미 특전사령부는 북한의 비대칭적 역량을 억제하거나 물리치고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합동 특전 위기 대응 능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합니다.



역량 있는 특수 부대

1980년대 특수작전처가 창설되면서 한반도 내 주한 미 특전사령부의 역사가 시작됐으며, 1995년 특수작전처가 분리되면서 주한미군의 독립적인 기능 구성군 사령부가 됐습니다. 창설 이래 주한 미 특전사령부는 억제가 실패할 경우 미국과 한국의 특전부대가 연합 작전을 실시하는 유일한 전역 특전 사령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 특전사령부의 본부는 서울의 용산 개리슨 (Yongsan Garrison) 근처에 있는 캠프 킴 (Camp Kim) 입니다.

주한 미 특전사령부는 작전 중심 본부로서 특수 작전의 계획 및 실행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임무 하에 주한 미 특전사령부는 3대 주요 분야인 순환 특전부대 임무 지휘, 한국 전역을 아우르는 훈련 발전, 한국 특전부대와의 협력을 진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75레인지연대, 제 1특전단 및 제 19특전단 (현역 및 국가방위군), 제 160공수특전단, 미 공군 제 35특전단, 해군 제 1특전단을 비롯해 미국의 다양한 순환 특전부대가 한반도에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주한 미 특전사령부는 불시에 작전 투입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복합 연합 작전 환경에 배치되어 훈련하고 있는 유일한 전역 특전사령부입니다. 미국 특전사령부 소속으로서 한국의 특전사령부와 통합된 주한 미 특전사령부는 미국 유관 기관 및 정부 파트너십으로의 물자 및 병력 공급 활동 역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 특전사령부는 전투 역량을 지원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분야의 특전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휴전, 위기, 전쟁 시 주한 미 특전사령부는 배치된 미 특전부대를 지휘하여 북한의 위협을 격퇴하고 지원계획을 개발하며, 한국 특전사령부,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 한국 공군 제 255특수비행전대, 유엔사 파병국 특전부대와 공조하여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을 지원합니다. 적대 상황 발생 시 주한 미 특전사령부는 특전 합동 기동 부대로 전투편성하여 미국과 유엔사의 특전부대를 기동타격대와 연계합니다. 주한 미 특전사령부 사령관은 연합사의 6개 전투구성군 중 하나인 한미 연합 특전구성군 사령부의 부사령관, 그리고 유엔사 특전부대구성군의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미 육군 사진



알프레드 A 코필드 (ALFRED A. COFFIELD) 마찰보양함 3 군

콜빌 맥 (COVILE MCFEEL) 상륙

2016년 10월 22일 군산 공군기지에서 구역을 확보하고 통신을 구축한 미국 제 320 특전대 제 1특전팀에 배치된 공군 전투통제사와 한국 제 255특전사.

2017년 3월 3일 독수리 훈련 중 진해 해안에서 폭발물 처리 작전을 준비 중인 한국 해군 수중폭파반 대원.



주한 미 특전사령부는 키 리졸브 (KEY RESOLVE), 을지프리덤가디언 (ULCHI FREEDOM GUARDIAN) 등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주요 훈련에 연중 수시로 참여합니다. 더불어 독수리 훈련 (FOAL EAGLE) 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 훈련은 한미 양국이 매년 실시하는 일련의 방어 중심 훈련으로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를 방어하며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증된 파트너십

주한 미 특전사령부는 한국 특전부대와 66년에 걸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측의 한미동맹 지원 능력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제 39 특전부대파견대는 미국과 한국 특전사령부 사이의 상시 연락 부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 특전단 현역 및 예비역 구성군은 정기적으로 한국 특전부대와 협력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 특전부대는 한국 공군 제 255비행대대 및 한국 특전부대와 매달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의 합동특전연락반은 미 7공군 및 한국 공군 작전사령부와

협조하여 특전부대와 재래식 공중 플랫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환 배치된 미 해군 SEAL 특전부대는 한국 해군 특전전단과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엔사 파병국 특전부대와와의 파트너십 역시 주한 미 특전사령부의 현재 및 미래 기능에 무척 중요합니다. 2016년은 주한 미 특전사령부의 국제 관계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한 해였으며 유엔사는 다국적 역량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특전부대는 전투를 통해 검증된 경험과 전문성을 집단 방어 역량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특전부대 주둔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대응할 전략적 옵션의 개발 및 구체화에 기여하면서 한국-유엔사 특전부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 미 특전사령부는 앞으로도 휴전과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 특전부대를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활용하거나 한미 고유의 연합 특전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군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을 억제하거나 물리치고 휴전을 유지할 전략적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대 이전

미래 재정의 //



위: 미 육군 험프리스 (Humphreys) 기지 주거 시설 조망도 아래: 미 육군 험프리스 (Humphreys) 기지에 위치한 새로운 주한미군 및 8 군 본부 (왼쪽)와 주거 시설 (오른쪽).



미 육군 사진

수년에 걸친 미국과 한국 사이의 긴밀한 공조와 노력을 통해 일련의 부대 이전이 시작되어, 주한미군 대부분을 서울과 서울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이 계획은 한미 양국의 두 가지 합의 (용산 재배치 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한미동맹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과 안정 유지를 지원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프로그램에 따라 주한미군은 두 개의 허브, 즉 오산 및 평택 중심의 중부 허브와 대구 중심의 남부 허브로 통폐합됩니다. 이 두 허브에 인력 대부분을 배치함으로써 주한미군의 미래 방어 프로그램 수행 역량이 강화되고 비전투원 대피 절차가 효율화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활동의 핵심은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의 개발 및 건설 작업으로, 이는 효율을 극대화하고 준비태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주한미군의 혁신적인 새

보금자리입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지원 서비스 대부분이 본부와 막사에서 걸어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현대적인 “시티 센터”에는 편의시설 대부분이 자리잡고 있으며 남쪽의 주택 및 학교 그리고 북쪽의 막사와 차량 정비 시설에서 가까워 편리합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미군 기지 가운데 가장 최신 시설을 갖추게 됐습니다.

107억 달러 규모의 이번 재배치 프로그램은 한미동맹에게 매우 커다란 작업입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규모가 3배로

확장되어 워싱턴 DC 중심부와 거의 비슷한 약 430만 평의 면적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수천 대의 트럭으로 107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흙을 투입하여 기존의 논을 침수 수위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공사 작업은 건물 655개를 신축하고 기존 건물 340개를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이 건물들은 약 1만 2000명에서 3만 6000명 이상으로 증가한 인원을 수용하게 되며 여기에는 군인, 가족, 군무원, 콘트랙터, 카투사가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베일러 대학교 전교생을 텍사스 공대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완공된 주요 시설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족 아파트, 지역분배노드, 폐수 처리장, 비행장 통제소, 아동 발달 센터, 의무여단 본부, 막사 프로젝트, 방송 센터, 철도 종점, 치과, 추가

막사, 통신 센터, 식당 2곳 등이 있습니다. 2017년 말까지는 교회, 우체국, 도서관, 추가 아동 발달 센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새로운 PX와 식품 매장은 2018년 초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로 이루어지는 캠프 험프리스의 확장 공사는 모든 대규모 작업이 그렇듯 걸림돌도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육군, 해군, 해병, 공군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평 및 수직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공사의 지연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일부 부대 이동이 연기됐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캠프 험프리스는 주한미군의 삶의 질과 준비태세를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며 주한미군은 이 복잡한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어려움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는 미 8군, 주한 미 해병, 일부 주한미군 부대가 현재까지 완성된 평택 건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재배치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전투태세와 주둔을 달성하는 동시에 미국과 현지 지역 사회의 파트너십을 개선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준비태세와 억제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덜 복잡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국익을 지원하고 양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동맹이 강력하고 확고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미 육군 험프리스 (Humphreys) 기지 고등학교.



새로운 미 육군 험프리스 (Humphreys) 기지 식당.

캠프 험프리스: 간략 정보 //

- 캠프 험프리스는 주한미군, 미8군, 제2보병사단의 공식 본부가 됩니다
- 캠프 험프리스는 완공되면 미국의 해외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됩니다
- 프로젝트 예상 비용은 107억 달러입니다
- 캠프 험프리스는 3만 6000명에 이르는 미군, 가족, 군무원, 콘트랙터, 카투사를 수용하게 됩니다
- 655개의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 캠프 험프리스는 군인, 가족, 보행자 친화적으로 설계됐습니다
- 새로운PX와 식품 매장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 캠프 험프리스는 신축 교회5곳, 피트니스 센터3곳, 48레인 규모 볼링장, 영화관, 도서관, 테마 레스토랑, 커뮤니티 활동 센터를 자랑합니다
- 평택은 한국 전역으로 연결되는 효율적인 교통 요지입니다

미 육군 사진



지역사회관계

주 한미군 가족들은 한국 곳곳에서 한국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며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2003년 시작된 좋은 이웃 프로그램은 한반도 전역에서 튼튼하고 활기찬 주한미군 지역사회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 프로그램은 개인 간의 건설적인 소통을 장려하며, 유익한 참여를 촉진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도록 마련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미국과 미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있습니다. 2016년 주한미군 대원과 가족들은 전국에서 2000여 개의 행사를 주최하거나 참여했습니다.

진해

한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미 해군 진해함대 지원부대의 지역사회관계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진해 부대원들은 현지의 여러 고아원과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우를 위한 애광원과 65년 이상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원들은 비번 시간을 이용하여 진해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부산의 주한 미 해군 사령부도 한국전 발발을 기억하는 유엔 기념 공원, 유엔 설립 기념일, 한국전 전사자 추모행사 '부산을 향하여' 등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슬리 J 브라운드러브 (WESLEY J. BREDLOVE) 중령



2016년 11월 5일 한국 거제도 봉사 방문 중 애광원의 장애인 원생들과 게임 중인 제이슨 스윙 (Jason Swing) 중사.

조나선 스테판 (JONATHAN STEFFEN) 하사 (상단 왼쪽에도 등장)



2016년 5월 2일 송탄 상업 지구 화재 시 자신의 아내와 자녀 세 명의 목숨을 구해 준 제 51지원대 스테판 하네스 (Stefan Hanyes) 중사에게 감사하는 프린스 엔이오코 (Prince Enyioko). 2016년 4월 29일 송탄 쇼핑가 화재 당시 불타는 건물에서 프린스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제 51비행단, 제 8비행단, 제 35방공대 대원이 출동했습니다.

포항 및 오천

한국 동남해안에 위치한 소규모 기지 캠프 무적 (Camp Mujuk) 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는 인근 포항 및 오천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스 우비나스 (Jesus Ubinas) 해병 하사는 이러한 관계의 대표적인 예로서, 고아를 위한 여름 캠프를 주도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오천고등학교 학생들과 소통하며 신뢰와 개방적인 분위기를 마련하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수립에 일조했습니다. 또한 다솜 어린이 센터에서 영어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빈센트 K 브룩스 (Vincent K. Brooks) 장군은 우비나스 하사에게 2016년 주한미군 한미동맹 홍보대사 상을 수여했습니다.



2016년 10월 2일 한국 전역에 배치된 미군을 대표하여 지상군 축제에 참가한 8군.

정일환 상병

미 육군 사진

대구

제 19원정지원사령부와 미 육군 대구 지역 기지의 부대원들은 매일 대구 현지 학생 및 기타 지역사회 주민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대구 지역 기지는 모델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학기마다 6개 현지 대학교 소속 대학생 55~60명을 부대 내 다양한 사무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턴은 친구 및 가족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사실상 주한미군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캠프 워커 (Camp Walker) 의 부대원들은 대구와 칠곡군의 여러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매년 남구 글로벌 영어 캠프를 자발적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대구 주둔 부대들은 현지 고아원을 후원하는 오랜 전통도 갖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23일 오픈 하우스 행사 중 아파치 (Apache) 헬리콥터에 올라선 한국 어린이에게 미소 짓는 미군 병사.

지역사회관계

딜리안 배먼 (DILLIAN BAMMAN) 상병



2016년 9월 24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열린 2016 공군의 날 행사 중 한 가족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미국 제 25비행단 닉 캐슬 (Nick Castle) 중위.

오산

매년 10월 미 7공군은 오산 공군기지에서 에어 파워 데이 (Air Power Day) 를 개최하여 한미 공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례 행사는 주한미군이 주최하는 "좋은 이웃" 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8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의 제 51전투비행단은 송탄의 2017년 3월 2일 석우중학교, 원일중학교, 대호중학교, 성호중학교, 문시중학교, 원천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결연 (Adopt-A-School)"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8 전투비행단은 군산 지역에서 2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와 평택대학교도 미 7공군 신입 부대원을 대상으로 한국 소개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하여 2일에 걸쳐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언어, 음악, 예절 및 문화를 배우고 요리 강습에 참가하며 서울 관광을 즐기게 됩니다.

평택

평택에서는 신규 부대원, 군무원, 가족들이 평택대학교가 3일간 진행하는 "헤드 스타트 (Head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교수의 한국어, 문화, 정치, 사회, 언어 강의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교육은 한국을 처음 접하는 미국인에게 한국인을 더 잘 이해하고 긴밀한 우정과 상호 존중을 쌓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부대원들도 자원 봉사를 통해 현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며 야곱 고아원과 성육 고아원의 각종 행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또한 탄탄한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강의실 수업 대신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12일 주한 미 해군의 새로운 보급지리인 부산 해군기지로 입항 중인 USS 존 C 스테니스 (John C. Stennis) 호.

웨슬리 J 브리드러브 (WESLEY J. BREEDLOVE) 대외홍보담당 3급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통해 튼튼한 미래 구축

독재에 맞서는 파트너십, 미래를 향한 한미동맹

냉전의 첫 산물로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5000년 역사를 가진 한국은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냉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타협을 모르는 북한 정권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포격이 시작된 순간부터 한미동맹은 북한의 어떠한 도전에도 맞설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비록 전쟁 속에서 형성됐으나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 억압에 맞선 군사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고 전 세계에서 인권을 증진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경제 협력에서 합동 평화유지 임무와 교육 교류에 이르기까지,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 관계를 넘어서 미래의 평화, 번영, 안정을 함께 추구하는 친선 관계임을 증명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남북 분단을 넘어 미래를 바라보며 폭넓은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견고히 유지될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 비전 마련

한미동맹의 이야기는 인천, 낙동강, 장진호 전투에서 기록되기 시작했지만 이를 확고히 다진 것은 경제 지원과 조연을 제공한 미국 기업들 및 상공회의소였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의 지원으로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자동차, 텔레비전, 전화기를 생산하는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미군에서 복무해왔으며 역시 수많은 미군들이 한국군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우정이 성장하면서, 조연자의 관계에서 동등하게 세계 자유 수호라는 짐을 함께 나눠진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세대들이 사회를 이끌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념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한국인들의 가치와 이해는 미국의 젊은이들과 같지만, 정치에서는 기존의 정당 노선을 따르기보다는 정책의 실제 내용과 미래의 비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미래 지도자, 정책 결정자,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교류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새로운 양국 관계를 형성하는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특별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젊고 개방적인 한국인들은 국방, 통일, 국제 안보 협력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미 파트너십은 두 나라를 연결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항상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사령부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세대와 유익하고 변화를 가져올 대화를 나누기가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글로벌 동맹

한미동맹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남북 분단을 뛰어넘는 장기적인 한미 협력 비전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계속 주둔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평택과 대구의 두 허브를 중심으로 부대를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한미동맹은 군사적인 측면이 물론 가장 뚜렷하지만 진정한 강점은 미국과 한국이 성실히 구축하고 있는 외교, 경제, 사람 대 사람 관계의 성장에 있습니다. 양국은 미군의 주둔으로 커다란 상호 이익을 얻었으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협력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견고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유지 활동, 경제 번영, 민간 협력, 학술 교류, 자연 보호에까지 기여하는 포괄적인 관계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귀중한 파트너로서 대테러 및 대해적 작전을 수행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 구축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유엔사를 통해 우리와 협력하는 나라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전 중 21개국이 군대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유엔군에 제공했으며 이들의 아들과 딸 3959명이 전사했습니다. 파병국과 국제 파트너로 이루어진 강력한 네트워크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준비태세를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한반도 및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협력하는 국제 파트너들의 하나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올해 주한미군은 유엔사와의 일상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다자간 참여와 국제적 지원을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유엔사는 한국 지원 다자간 참여의 조율 채널을 한미동맹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군대가 함께 협력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심도 있고 폭넓은 역량의 지상군도 제공합니다. 한미동맹이 추가 자원을 필요로 할 때 파병국은 공중, 지상, 해상 작전상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난해 한강 하구와 비무장지대에서 이루어진 작전을 통해 유엔사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016년 사령부는 합동 군사 훈련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파병국들의 열정을 환영했으며 참여 및 통합 강화에 대한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의견 교환과 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국제 파트너를 협력에 참여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데 투자한 지역 및 국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로, 우간다가 북한과의 오랜 군사 관계를 끊고 사령부가 주도하는 비무장지대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북한이 아닌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다국적 협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도발을 고수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범위와 강도를 늘리기 위한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양국은 기존 미군 협력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의 그 어떠한 지역 혹은 글로벌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김정일의 불량 정권이 사라지더라도 격동의 역사 속에 70년 동안 지켜온 굳건한 관계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을 억제하고 무찌를 준비가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갖춰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지지하는 공통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공산주의, 독재, 억압에 맞서 처음 시작된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수호하는 파트너십으로 성장했습니다.

미 육군 사진



2016년 10월 14일 처음으로 삼국 군 최고 지휘관 회동을 마련하여 한국 및 일본의 지휘관과 함께 자리한 조셉 던포드 (Joseph Dunford) 합동참모본부 의장





2017 대한민국 전략 다이제스트

언론매체의 문의사항은 +011 82 2 7913 4661 로 공보업무과에 전화하십시오 | 저희 웹사이트 www.usfk.mil 을 방문하십시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는 사령관의 전략 커뮤니케이션처 (Communications Strategy Division) 에서 발행하는 사령부 출판물입니다. 편집 내용은 평문이며 사령부 산하 기관이 지향하는 공동의 노력을 반영하고 폭넓은 전파를 지향합니다. 내용이 항상 미국 정부 혹은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은 아닙니다. 모든 내용은 관련된 출처의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